

상임위원회 강화를 위한 실무팀

A. 구성원

상임위원

- 필립 리처드슨 대주교(위원장), 오테아로아, 뉴질랜드와 폴리네시아
- 오삼 나오움 대주교, 예루살렘과 중동
- 캐논 마가렛 스윈슨, 영국
- 주엘 와웨루, 케냐

직원

- 요시아 이도우페론 대주교
- 윌리엄 애덤 신부
- 스테파니 테일러

B. 개요

1. 실무팀은 상임위원회(2021년 9월)에 간략한 보고서를 소위원회의 '성공회의 장점, 소명,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세계성공회 신앙과 직제 상임위'(IASCUFO)의 '기구들 간의 화합을 위하여'(2018)라는 문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 리처드슨 대주교(실무팀 대표)는 '상임위를 강화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데 있어 실무팀이 직면한 세 가지 현안 과제를 제시하였다.
 - 자율적인 관구로서 세계성공회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도전

- 세계성공회 내의 불일치를 다룰 합당한 매카니즘을 찾는 어려움
 -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에서 관구장, 주교, 사제, 평신도의 목소리 간에 균형을 이루는 방식 - 최근 관구장 회의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교회의 의사 결정에서 평신도의 참여라는 성공회의 위대한 전통을 감안하여
3. 실무팀은 최근 상임위원회 이후 두 번 회합을 가지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C. 상임위원회와 기구들

4. 세계성공회의 네가지 기구들(캔터베리 대주교, 람베스 회의, ACC, 관구장 회의)은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들은 ACC 7차 회의(1987)에서 처음으로 기구들로서 언급되었으며, 1997년 버지니아 보고서가 출판된 후에 널리 인정되었다. 1998년 람베스 회의 결의의 3조 8항은 버지니아 보고서에서 묘사한 기구들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5. 세계성공회의 네 기구들은 각각 다른 활동방식을 가진다.
- a. 캔터베리 대주교는 그자체로서 하나의 기구이면서, 또한 헌장과 협약에 따라 다른 기구들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1) 람베스 회의의 소집자
 - 2) ACC(성공회협의회)의 회장
 - 3) 관구장 회의의 소집자와 의장
 - b. 람베스 회의는 10년마다 열리며, 그 주요한 역할은 '주교들 간에 존재하는 상통(communion, 세계성공회)을 표현'하고, '주교들에게 자신들의 지위(order, 직함)에 따른 가르침의 사역을 집단으로서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 c. 성공회협의회(ACC)는 주교들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대의 기구이다. 그 사업들은 헌장에 의해 운영(governed, 처리)된다. (람베스 회의와 관구장 미팅은 이와 다르며, 그들의 회합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협약(conventions, 관례)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법적(헌장적, 구속력이 있는) 구성은 아니다.) 또한 회의 사이에 지속성을 보장

하기 위한 상근 사무국(비서실)과 상임위원회를 가진다.

d. 관구장 미팅은 비공식적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회의의 빈도와 의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관구장들과 협의하여 정해 왔다. 최근 관구장 미팅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성공회협의회 헌장은 관구장 미팅 상임위원회(Primate's Meeting)에 성공회협의회 상임위원(ACC) 5명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6. 최근 수년간, 회원 교회들(관구들)과 세계성공회 기관들 간의 권위의 균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관들은 회원 교회들이 양보하는 만큼만, 회원교회들 사이에서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계성공회협약(the Anglican Communion Covenant)와 같은 프로젝트의 사례는, 권위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세계성공회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회원 교회들의 상당한 반대를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7. 관구장 미팅의 의사결정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구장 미팅이 여타 공의회적 기구들보다 더 자주 모이고, 주교들 특히 관구장들이 교회(the Church, 세계성공회) 안에서 가르치고 치리하는 역할을 갖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대의적인 그룹들(람베스 회의나 ACC와 같은)에서 하였을 법한, 회원교회들(관구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계획들을 최근에 와서 관구장들이 하게 된 것은 확실히,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8.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강화'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회원 교회들에 비해서 '중앙'의 권위가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결국 상임위원회 권위의 강화는 사실상 세계성공회 내에 다섯 번째 기구를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 하지만, 그 질문이, (세계성공회 기구들과 회원 교회들과 어떤 연관을 맺는가 여부보다는) 세계성공회의 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라면, 상임위원회 건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 a. 이것(상임위)은 세계 성공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일 만큼 아주 작은 조직체이다.
 - b. 현재 구성된 세계성공회의 모든 기구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상임위원회에 자신을 대변하고 있다(위원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 c. 이것은 원론적으로 관구장들과 여러 주교들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된다.

11. 이 실무팀이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질문으로 계속 회귀하게 될 것이다.

D. 보조성

12. 실무팀은 교회와 세속에서 공히 사용하는 용어 보조성(subsidiarity)의 개념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결정들은 지역(local) 단위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의 권한과 권위는 그러므로, 지역(분권적) 권위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3. 보조성은 세계성공회의 조직형태에 가시화되어 있다. 중앙의, 세계적인, 구조들은 지역 교회들(교구들) 권위에 보조적이다. 세계성공회사무소(ACO) 업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최근 검토는 이를 강화하였다.

E. 기구들 간의 화합

14. 2018년 '세계성공회 신앙과직제 상임위'(IASCUFOW)에서는 '기구들 간의 화합을 향하여' Towards a Symphony of Instrument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네 기구들의 역사와 기능들, 상호 관계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15. 이 보고의 요지는 '세계성공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상통(our communion in Christ)이라는 점이다. 기관들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성공회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은 구조(structure)라기 보다는 사람들이다.
16. '세계성공회 기구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선교로 섬기는 데에서 이루는 하느님과의 그리고 서로간의 상통(communion)이다.'¹ 그 기구들의 과업은 세계성공회가 상통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교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기능들과 필요불가결한 구조들도 있겠지만, 기구들이 '선교하는 상

¹ [Symphony para 6.3.3.](#)

통 communion in mission을 강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일보다, 자신의 구조에만 온 통 관심을 쏟는다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17. '세계성공회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이 실무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 실무팀의 작업은 '기구들 간의 화합을 향하여'를 꼼꼼히 살펴 보고, 어떻게 하면 상임위원회가 유용하고 진정한 성공회적 방식으로, 기구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다.

F. 결론

18. 실무팀은 아직 상임위원회와 세계성공회 기구들에 제출할 확고한 결론들과 권고들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무팀 내에서 접근 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모임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론과 권고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보고한다.
19.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우리는 '세계성공회의 장점, 소명, 도전' The Gift, Call and Challenge(소그룹의 보고서)와 '기구들 간의 화합'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피게 될 것이다.

위원장 필립 리처드슨 대주교

2022년 2월에